

당근 파종기 폭염·고열 피해 농가 비상...한국농어촌공사 제주 긴급 급수지원

✎ 박경철 기자 | ☎ 승인 2024.08.11

일평균 강수량 5.6mm 평년 69% 수준...폭염일수 18일 관측 최고치 경신

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긴급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.

당근 파종기 폭염에 따른 물 부족과 고열 피해로 제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.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당근 파종기에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구좌읍 김녕, 월정, 행원, 한동지역에 지난 6일부터 매일 긴급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.

공사는 9일 제주의 일평균 강수량이 5.6mm로 평년의 69% 수준에 그친 데다 폭염일수가 18일로 관측 최고치를 경신해 물 부족 현상에 고열 피해까지 더해져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라고 전했다.

특히, 국내 전체 당근 생산량의 60%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구좌지역은 7~8월 당근 파종기에 들어섰으나 고열과 물 부족으로 당근 모종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.

이에 공사는 보유 중인 급수차량을 배치해 긴급지원에 나섰고, 관내 공사관리 저수지 농업용수를 적극 활용해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.

김동철 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“행정기관과 협력해 물 부족 단계별로 저수지, 급수차, 급수탑, 양수장비 등 모든 보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 총력 대응할 계획”이라며 “폭염이 지속되고 물 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하수 전문기관으로서 파종기 물 부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와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

박경철 기자 pkc1105@gmail.com

저작권자 ©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